

2026년 6월 14일 연중 제 11 주일

성 예수의  
대 테레사  
제 134 호

# 북여주성당 가족지

발행인 : 전합수 가브리엘 주임신부      편집 : 사무실 및 사목회  
☎ 031) 886-9322 <http://cafe.daum.net/byjsd> (북여주 성당)

## 생활말씀 (2026년 5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요한 20,21-22)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파스카 축제 아침에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나타나십니다. 같은 날 저녁 그분께서는 처음으로 당신의 제자들 가운데에 직접 당신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제자들이 즉각적으로 보인 반응은 기쁨 그 자체였습니다. 이 기쁨은 “평화가 너희와 함께!” (21절)라고 하신 말씀에서 의미하듯이, 그분께서만 주실 수 있는 참된 평화로 가득한 기쁨이었습니다( 요한 복음 14장 27절). 기쁨과 평화는 성령의 열매입니다.<sup>1)</sup> (갈라 5장 22절) 실제로 예수님께서서는 즉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아라.” (22절) 하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성령께서는 하느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소명과 동일한 소명을 제자들이 실천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실 뿐 아니라, 이 제자들을 새로운 인류로서 ‘재창조’ 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는 모습은 창조주 하느님께서 흙의 먼지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던 것<sup>2)</sup>과 똑같은 행위입니다.(창세 2장 7절) 창조는 온 우주를 지탱하는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이 계속해서 이루어 가는 사업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새로운 창조 사업도 하느님 나라를 향한 여정의 길을 가고 있는 인류를 계속해서 지탱해 줍니다.

이번 달 생활말씀은 우리 존재가 하나의 크나큰 가능성을 지니고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즉 ‘또 다른 예수’ 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는 개인적으로도 해당되지만, 공동체적으로는 더욱 사실이 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한 사람이 아닌 여러 명의 사람들에게, 당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사실상 모든 지체들이 각각의 특성을 지니고 함께할 때만 비로소 예수님의 신비체를 ‘반복’ 해서 구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그러므로 하느님의 아드님을 통해 우리도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우리 역시 예수님의 소명과 동일한 소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곧 하느님 아버지의 품에서 나온 우리는 성령의 은총이

함께해 주시는 가운데, 이 세상에서 그분의 행동과 그분의 말씀을 반복해서 구현한 다음 다시 하느님 아버지께로 되돌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이 선물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도 바로 사도와 함께 다음과 같이 확신을 갖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나 매일의 삶을 통해, 성령과의 관계가 깊어지도록 하라고 당부합니다. 이를 위해 “성령의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다음과 같은 사실을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하느님께서는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되어 버리고, 그리스도께서는 과거에만 계셨던 분이 될 것입니다. 또한 복음은 죽은 글자가 되어 버리고, 교회는 그저 하나의 단체에 불과해질 것이며, 선교는 선전이 되어 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을 통해 우주는 드높이 들어 올려지고 하느님 나라를 잉태하여 신음하게 됩니다. 또한 성령을 통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현존하시고, 복음은 생명의 힘이 되며, 교회는 삼위일체적 나눔과 친교를 의미하게 되고, 선교는 성령 강림 대축일이 됩니다.”<sup>3)</sup> 1968년 7월 5일 『세계 교회 협의회(WCC)』 일반 총회에서 라오디게아(Laodi-cea) 관구의 이냐시오 관구장 주교가 한 이 말을 프란치스코 교황이 2020년 5월 31일 성령 강림 대축일 미사 강론에서 인용.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안드레아는 너무도 많은 실존의 위기를 느끼고 있는 사춘기 청소년입니다. 그는 삶의 의미에 대해 의문이 많고, 미래를 두려워하며, 자신이 겪는 나약함들이 마치 극복할 수 없는 엄청난 어려움들로만 느껴져서 종종 낙심하며 자신이 불행하다고 여깁니다. 누군가 그에게 끼아라 루빅과 함께 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 볼 것을 제안합니다. 안드레아는 끼아라 루빅을 만나기 직전, 끼아라가 낮은 소리로 “성령”이라고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는 끼아라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안드레아는 면담을 하는 동안, 끼아라에게서 깊이 이해받았다고 느낍니다. 또한 끼아라가 자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었다고 느낍니다. 그러면서 안드레아는 평화를 되찾습니다. 이것은 그의 문제들이 일시에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이제 그 문제들을 함께 나눌 누군가가 존재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난 후 안드레아는 다음과 같이 심경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저는 끼아라에게서 구체적인 도움을 받았을 뿐 아니라, 한 가지 삶의 방식을 배웠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 것처럼, 판단하지 않고, 섬세함과 이해심을 지니고, 고통받는 사람 곁에 있어 주는 자세입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께서만 이루실 수 있는 일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분을 맞아들이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도록 해 드린다면 말입니다.

클라우디오 찬팔리오니  
포콜라레운동 국제 본부 「생활말씀」 편집 위원

## 생활말씀 (2026년 6월)

“가서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여라.  
(...)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마태 10,7-8)

(이번 달 생활말씀이 나오는) 마태오 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뽑으시는 초기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더러운 영들에 대한 특별한 권한을 주시어 그것들을 쫓아낼 수 있게 해 주십니다. 또한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 줄 수 있는 은사도 지니게 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이 그들의 첫 선교 사명을 어디서 어떻게 수행해야 할지에 대해 지침을 주십니다. 그들이 선포해야 할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곧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sup>4)</sup>는 것입니다. (마태오 복음 10장 7절).

여기서 ‘가서’ 선포하라고 하신 말씀은 이런 점을 강조하신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는, 참된 제자라면 무엇보다도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가 이웃이 되어 주는’ 삶을 통해 선교해야 한다는 점이고, 다른 면으로는 그들과 함께하는 걸음이 곧 선포라는 이리심입니다. 실제로 요한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시고 나서 다음과 같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요한 복음 13장 35절)

“가서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여라. (...)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하늘 나라’는 예수님의 선포의 핵심입니다. 비슷한 표현인 ‘하느님의 나라’는 구약 성경에서 하느님의 지배, 통치, 그리고 인류 역사에 대한 하느님의 구원 행위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됩니다. 그분께서는 세상의 주인이시자 무엇보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의 최고 통치자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 민족들 사이에 이스라엘의 민족적 역할을 회복해 줄 다윗 왕의 후손이 오기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 당신이 다윗의 후손으로, 곧 왕으로 제시됩니다. 세속의 왕국과 달리 ‘하늘 나라’는 평화와 정의의 나라이며, 가난한 이들을 돌보고 용서와 화해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리하여 이 나라가 모든 민족에게 생명과 빛을 가져다줄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느님의 나라는 이미 이 세상에서,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 안에서 시작되었지만 예수님의 재림 때 비로소 온전히 실현될 것입니다.

“가서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여라. (...)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예수님께서서는 하느님의 나라가 시간적으로 가까이 있다고, 임박해 있다고 선포하십니다. 거자씨의 비유나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하는 누룩의 비유에서처럼 하느님의 나라는 신비롭고도 겸손한 방식으로 작용하면서도 끈기 있게 오랜 시간에 걸쳐 그 효력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깝다’는 말은 공간적 의미도 포함합니다. 예수님의 영靈의 현존을 전해 주는 제자들이 (복음 선포의) 여정을 따라 걸으며 다가올 때, 하느님의 나라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마르코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율법 학자에게 “너는 하느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라고 하셨을 때, (마르코 복음 12장 34절) 그 말씀은 “너는 깨닫기 시작했다.” 라는 뜻일 뿐만 아니라, “너는 나에게서 멀리 있지 않다.” 라는 의미로도 보입니다.

“가서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여라. (...)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거저’라는 말은 원래 그리스어 원본에서 ‘선물로’라는 뜻의 단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이는 사도들이 받은 모든 것이, 그들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 근원은 하느님의 관대함이며, 그들이 특별한 사명을 위해 선택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해 끼아라 루빅은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습니다. “그러므로 하느님의 나라는 기쁘고 반갑게 맞아들여야 합니다. 이는 하느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사실 인간의 어떠한 노력도, 고행 실천이나 학문과 지식에 대한 탐구도 우리를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다름 아닌 하느님 당신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당신의 빛으로 당신 모습을 드러내 보여 주시며, 당신의 은총으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하느님의 선물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여기며 자랑하거나 의지할 만한 그 어떤 공로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무상無償으로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끼아라 루빅, 단행본 『생활말씀Parole di Vita』, 파비오 차르디 엮음. (끼아라 루빅 전집 제5권), 치타누오바 출판사, 로마, 2017년, 이탈리아어 원본 152-153쪽 참조.

우리는 이렇게 하느님의 나라를 기쁘고 반갑게 맞아들이면서,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맡기신 임무를 오늘날에도 계속 이어 갈 소명을 받았습니다. 이는 온 인류에게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말과 행동으로 선포하는 일입니다. 이처럼 고통스럽고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도 하느님께서 그들을 무한히 사랑하시며, 우리 모두를 무한히 사랑하시는 것을 알리는 뜻입니다.

아우구스토 파로디 레예스

포콜라레운동 국제 본부 「생활말씀」 편집 위원